



綠담笑담

매일
‘지구의 날’처럼

#녹담 #지구의날 #녹색소비
#지구공생 #시민실천 #에너지전환

정현수
(녹색소비자연대 3무위원회 위원장)

지구의 날의 시작과 세계적인 확산

올해 지구의 날이 55주년을 맞이한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으로 시작해, 1970년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4월 22일을 지구의 날이라고 명명하며 모였다. 청년과 시민 백만 명이 넘게 만난 자리에서 지구의 날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하나 뿐인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많은 생명과 생태계와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당시 행사에서는 토론회를 열어 시민실천을 촉구하였고, 센트럴파크에 수십만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으며, 뉴욕시에서는 자동차 통행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그만큼 시민행동의 열기는 뜨거웠고 강렬했다. 1970년 지구의 날(4.22)을 기점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1972년 유엔환경회의에서는 환경의 날을 제정하였고,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만들어졌다, 이후 로마클럽에서는 <성장의 한계> 보고서를 발표했고, 수많은 환경회의들이 이어졌다.

한국의 지구의 날, 그리고 기후위기의 현실

한국에서는 1990년 한국YMCA, 한국YWCA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구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고,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 대구와 많은 도시에서도 1991년 지구의 날 기념 시민축제가 진행되었다. 연일 언론에서 지구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졌고, 연예인들도 모여 지구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기점으로 기후협약이 생기고, 2015년 파리에서 195개국이 지구와 인간의 공생을 위한 파리기후협약을 만장일치로 체결했다. 하지만 수많은 협약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파국의 지구평균온도 1.5도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우리는 지구와의 화해, 지구의 공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구는 글썽(?)이다. 종의 하나인 인간이 지구생태계에 저질러 온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구가 인간을 계속 품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구는 생각하는 소비자, 시민들의 연대, 그리고 활동으로 실질적 영향력 발휘 하길 원한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지구' 녹색소비자의 역할

올해 2025년 지구의 날 주제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지구'이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온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탄소소비에서 녹색소비로, 과잉소비에서 적정소비로,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녹색소비행동이고, 녹색소비자연대의 미션이다.

기후위기시대!

매일 '지구의 날'처럼 지구 입장에서 지구를 생각하며 생활하는 녹색소비자가 답이다!

綠담笑담



전 綠담笑담 살펴보기